

GWANGJU

FOOTBALL CLUB

April 2014 / NO. 02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SEASON ON

FA컵에서 순항중인 광주

광주를 이끌 재목, 신인 이찬동 · 송승민

광주, 홈 3연전에서 반격을 노린다

100경기 출전 앞둔 이완과 200경기 출전 앞둔 이종민

INTERVIEW

“축구가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창단 멤버 임선영, 올 시즌 공격욕심 포부

Next Home Match



광주 FC vs FC 안양

04월 20일(일) 14:00



광주 FC vs 안산 경찰청

04월 27일(일) 14:00



광주 FC vs 고양 Hi FC

05월 03일(토) 14: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FA CUP 32강

광주 FC vs 부천 FC
04월 30일(수) 19:00

FA컵 순항중인 광주, 클래식! 긴장해!

남기일 감독대행이 이끌고 있는 광주 FC가 FA컵에서 순항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9일(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고양 Hi FC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전, 후반을 득점 없이 끝냈지만 연장 전반 외국인 공격수 호마링요의 선제골과 연장 후반 신인 송승민의 결승골이 터지며 32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지난 15일(화) FA컵 32강 대진 추첨에서 부천 FC와 16강 진출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이미 광주는 부천과 챌린지 2라운드에서 만나 시즌 첫 승리를 올린 좋은 기억이 있다. 때문에 4월 30일(수) 저녁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부천과의 FA컵 맞대결에서도 승진보를 올리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의 역대 FA컵 최고 성적은 16강이다. 2012년과 2013년 16강전에서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에 패배하며 8강 진출에 실패

했다. 하지만 전력이 탄탄한 팀들을 상대로 절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특히 지난해 서울과의 16강전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다. 연장 전반 1분 만에 김은선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서울을 침몰시키는 듯 했으나, 연장 후반 2실점을 내주며 다 잡은 8강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반드시 8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 매년 클래식 팀에 발목을 잡혔으나, 올해 광주는 클래식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상대팀을 잘 알고 있고, 승리하겠다는 의지도 크다. 여기에 2라운드 고양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얻으며 FA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다. 때문에 광주는 부천을 넘고 클래식 팀과의 16강전을 벌써부터 고대하고 있다.

과연 광주는 올해 FA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 클래식 팀들을 긴장시킬 수 있을까?



광주의 미래를 이끌 재목 신인 이찬동 · 송승민

광주 FC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들이 나왔다. 올해 입단한 인천대 출신의 신인 미드필더 이찬동과 송승민이다. 두 선수는 동계 전지훈련부터 꾸준한 활약을 보여왔고 리그가 개막한 뒤 남기일 감독대행의 신임을 얻었다. 이찬동은 5경기(FA컵포함)에 모두 선발 출전하며 불박이 주전자리를 꿰찼고, 송승민은 4경기(FA컵포함)에 교체로 나서며 꾸준함을 유지했다. 클래식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신인의 패기를 앞세워 당당히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두 선수는 명실상부 광주의 미래이다.



광주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찬동

이 선수가 정말 신인이 맞는 것일까? 이찬동은 개막전 대구 원정경기부터 선발 출전하며 리그 4경기 연속 광주의 중원을 사수했다. 4경기 중 3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정도로 그의 비중은 컸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찬동은 포백 수비라인 바로 앞에 자리 잡으며 상대 공격을 1선에서 차단하고 있다. 183cm의 큰 키를 활용한 재공권 장악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저돌적인 태클과 함께 밀리지 않는 몸싸움이 돋보인다. 또한, 빌드업 과정 혹은 역습 상황에서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경기를 리드한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3라운드 한 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위클리 베스트 11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해 수비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나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가다듬어야 하지만 데뷔 때부터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다.



FA컵에서 데뷔골 터트린 송승민

송승민은 올해 광주에 합류한 신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데뷔골을 터트리는 기쁨을 맛봤다. 지난 FA컵 2라운드 고양과의 경기에서 1-1 동점 상황이던 연장 후반 11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FA컵 32강 진출을 이끌었다. 188cm의 건장한 체격을 앞세워 고공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고 패스, 드리블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승민이다. 아직까지는 주전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주로 교체 출전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남기일 감독대행이 교체 카드로 자주 사용한다는 점은 송승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다. 송승민은 그 기대를 FA컵 결승골로 보답했고 이제 리그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각오다.



광주, 홈 3연전에서 반격을 노린다!

광주 FC는 오는 4월 20일(토) FC 안양과의 5라운드 경기부터 홈 3연전을 갖는다. 27일(일) 6라운드 안산 경찰청, 5월 3일(토) 7라운드 고양 Hi FC를 홈으로 불러 들인다.

현재 광주는 1승 1무 2패 승점 4점으로 8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홈 3연전은 광주의 전반기 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4라운드를 기준으로 안양(1위), 안산(3위), 고양(4위)이 모두 상위권에 올라있기 때문에 광주는 상위팀을 잡아내면서 승점 차를 좁혀야 한다. 또한 최근 처져있는 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광주는 3라운드 충주 험멜(무), 4라운드 대전 시티즌(패)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안양전을 시작으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홈 3연전 상대팀들과의 지난해 맞대결을 살펴보면 모두 해볼만한 싸움이다. 안양과는 2승 1무 1패, 안산에는 3승 2패, 고양과는 2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상대 전적에서 열세에 놓인 팀들이 없다. 첫 번째 상대인 안양과는 지난해 11월 31라운드 홈경기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상대이자 막강한 선수단을 보유한 안산에는 오히려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한 모습을 보이며 강팀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마지막 상대 고양은 이미 올해 FA컵 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여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한 기억이 있다.

광주는 첫 경기 안양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이어 열리는 경기에서도 흐름을 타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때문에 광주는 이번 홈 3연전에서 필승을 각오로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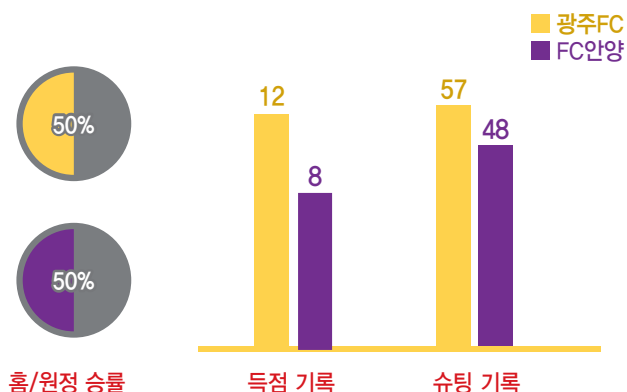
지난 시즌
FC안양전 전적

2승

2무

1패

지난해 맞대결 데이터



최근 맞대결



광주 FC

4:0

2013년 11월 0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FC 안양

전반 06분 루시오(김준엽)

전반 41분 박현

후반 13분 이광진

후반 35분 김준엽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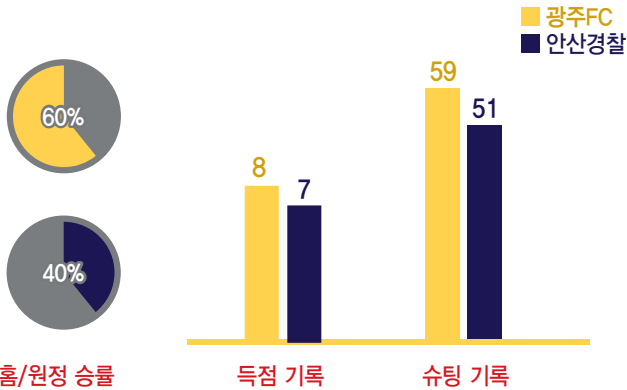
ANSAN
POLICE FOOTBALL CLUB

지난 시즌
안산경찰청전 전적

3승

2패

지난해 맞대결 데이터



최근 맞대결



광주 FC

1:3

2013년 11월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안산 경찰청

후반 31분 김호남

전반 10분 양상민(정조국)
후반 09분 정조국(이호)
후반 47분 고경민



VS



GOYANG
Hi FOOTBALL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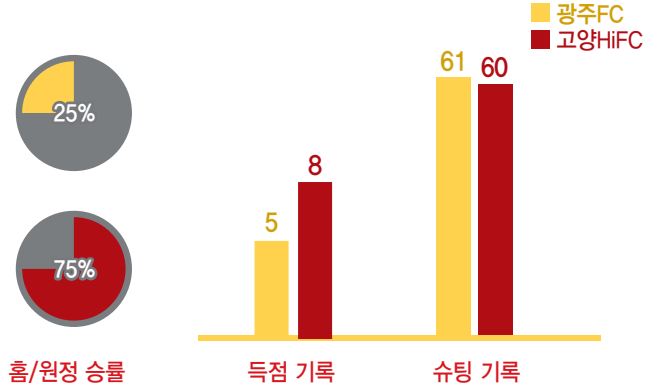
지난 시즌
고양 Hi FC전 전적

2승

1무

2패

지난해 맞대결 데이터



최근 맞대결



고양 Hi FC

0:1

2013년 11월 30일
고양종합운동장



광주 FC

—

후반 28분 김준엽(임선영)





광주 창단멤버 임선영, “광주시민들이 축구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임선영 No.5

1988.03.21 / 185cm, 78kg MF (미드필더)

용강중, 여의도고, 수원대 / K리그 통산 - 68경기

7득점 6도움 / 2014시즌 - 4경기 2득점

Q. 올해 임선영 선수의 초반 페이스가 좋아요. 운이 좋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동계 훈련 때 시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몸이 좋네요. 보답 받는 것 같아요.(웃음)

Q. 지난해 남기일 감독님과 호흡을 맞춰 더 편하지 않았나요? 전술적으로는 다른 선수들보다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팀의 변화가 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Q. 지난해 뛰던 선수 중 7명만이 잔류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새로 창단된 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선수단 내 규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Q.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광주의 시작이 좋지 않은데, 공격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여요. 경기를 하면서 저희도 느꼈어요. 부족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은 방법이 아니라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이죠. 저희가 슈팅이나 점유율은 앞서는데 결정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죠.

Q. 올해 팀의 3득점 중 2득점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공격적인 부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셨어요. 저는 지난해까지 2차적인 플레이를 많이

생각했고,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는 감독님뿐 아니라 마철준 플레잉코치님도 동계 전지훈련 때 제가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 때부터 공격 쪽에 욕심을 더 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초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수비 부담을 덜었지만 수비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죠.

Q. 그래도 감독님이 적극적 수비 가담도 강조하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하세요. 저도 최대한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고 있죠.

Q. 임선영 선수의 뒤를 신인 이찬동 선수가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이)찬동이 신인임에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형들을 밀어주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요. 찬동이가 볼을 잡았을 때 저한테 볼이 오는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찬동이한테 고맙고 점점 호흡이 맞아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 되요.

Q. 광주 창단 멤버로 4년째 활약 중인데, 원클럽맨으로 남겠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팀이 승격하는 게 먼저예요.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해야죠. 원클럽맨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광주에 남아서 광주시민들이 축구를 더 좋아하게 만

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일단 승격이 먼저예요(웃음)

Q. 광주에 오래 있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팬들도 있으시죠? 항상 경기장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본부석 아래쪽에 서서 소리쳐 주시는 남성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한테도 항상 감사하죠. 모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Q. 이번 FC안양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홈 3연전을 치르는데, 경기를 앞둔 소감은 어떤가요? 안양, 안산, 고양과의 홈경기가 있는데, 지난해 안양, 안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안양한테는 딱히 밀린 적이 없었어요. 안양이 올해 강해졌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 올해 강해졌어요. 비록 지난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홈 3연전은 다 이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Q. 올해 목표는요? 팀 목표는 당연히 승격이죠. 개인적인 목표는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싶어요. 올 시즌이 4년차인데 지난해 4득점 5도움보다 많은 공격포인트를 올려야죠!

Q. 광주 팬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현재 광주의 시작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응원해 주신만큼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이완, 이종민이 광주에서 써내려가는 스토리

광주 FC의 주장 이완과 오른쪽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이종민이 대기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대기록은 바로 출전 기록이다. 이완은 100경기 출전, 이종민은 200경기 출전에 단 1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광주에 합류한 이들은 자신의 프로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광주와 함께하게 됐다.

프로 선수가 이렇게 100경기, 200경기를 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꾸준한 실력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신인들의 패기와 경쟁력 있는 선수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에 두 선수는 성실함을 무기로 그라운드를 누벼왔다.

이완은 성실, 노력 그 자체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올해 주저 없이 이완을 주장으로 선임했다. 리더의 자질과 함께 선, 후배들의 가교 역할에 적극자였다. 2006년 프로에 발을 내밀어 전남 드래곤즈, 광주 상무, 울산 현대를 거쳤다.

올해 광주에서 프로 9년째를 맞은 그는 대구와의 개막전에서 팀의 선제골을 도우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종민도 2002년 수원 삼성에서 데뷔해 울산, 서울, 상주를 거치며 올해로 프로 15년차를 맞은 베테랑 수비수이다.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광주의 전력을 높였다. 올해 4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고 2라운드 부천전에서는 팀의 추가골을 터트렸다. 비록, 4라운드 대전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교체 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된다.

이렇게 광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완과 이종민은 이번 FC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대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들에게 승패와 관계없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종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욱	DF 박병주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송한복	MF 권수현	MF 송승민	MF 홍태곤
							그리고 광주FC를 응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호마령요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종훈	FW 이진호		

2014시즌 홈 경기 일정

★FA CUP VS 부천 FC 04월 30일(수) 19:00


04월 27일(일) 14:00  VS 안산 경찰청

05월 03일(토) 14:00  VS 고양 Hi FC

05월 14일(수) 19:00  VS 수원 FC

05월 18일(일) 14:00  VS 대전 시티즌

06월 08일(일) 19:00  VS 강원 FC

06월 30일(월) 19:00  VS 대구 FC


07월 19일(토) 19:00  VS 수원 FC

07월 27일(일) 19:00  VS 부천 FC

08월 16일(토) 19:00  VS 충주 험멜

09월 06일(토) 19:00  VS 안산 경찰청

09월 13일(토) 19:00  VS 고양 Hi FC

09월 21일(일) 14:00  VS 강원 FC

09월 28일(일) 14:00  VS FC 안양

10월 11일(토) 14:00  VS 대구 FC

10월 25일(토) 14:00  VS 대전 시티즌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해운대 호텔로시  KJB  광주은행  Hyundai Oilbank  중흥S-클래스

 이윤범 청연의료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선대학교병원  고현규 지리산산삼  비타민하우스

 광주패밀리랜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사랑방신문  Joma  밝은안과21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광주수완병원  CMB  광주방송  에스탑 치과의원  농심  윤암한방병원

발행일 2014년 04월 16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동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o)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